온라인 실시간 화상 포럼

코로나 19와 교육성찰

- 학교일상 낯설게 바라보기

2020. 7.14(화) 16:00 - 17:40

사단법인 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

위기 상황과 민주주의 : 결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관료주의

새너울중학교 곽두호

서울에 가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원래 한 줄 서기였는데, 어느 날 두 줄 서기, 그 다음에 갔을 땐 다시 한 줄 서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한 줄 서기를 했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더라. 그래서 두 줄 서기로 바꿨다. 그랬더니 이번엔 바쁜 사람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그래서 다시 한 줄 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했을 뿐이다. "기계 수명과 이용자 편의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회의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학교 성과급이 있던 시절 이야기다. "당신이 연수를 적게 받으면 학교 평균이 깎여서 성과급이 B 나온다", "교육청 공모사업을 해야 잘 보일 수 있다" 고 들볶였다. 그렇게 몇 년을 하더니 어느 날 학교 성과급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지거나 이유 없이 교사들을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보 보안이라는 이유로 작년까지 막아 놓았던 네이버, 구글, 클라우드, 카카오톡 등 상용 메일과 메신저도 코로나 위기상황이 오자 슬그머니 다 풀어놓았다. 물론 지금까지 정보보안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교 개학 초기에 자가진단을 강조하면서 한두 명이 자가진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난 압박을 했다. "자가진단을 100%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교감의 말이 "100%를 지향하되 80% 이상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도 아니고, 질본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단지 어느 장학사의 뇌피셜[1]이다. 그렇지만 몇 시 몇 분까지 그 80% 이상에 도달해야 하는지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없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학생들은 자가진단 후 이상이 없을 때 학교에 와야 한다. 하지만 등교하기 바쁜 학생들 태반은 등교해서 현관에서 교실로 가는 중에 자가 진단을 한다. 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다. 자가 진단율이 100%가 되면 누가 기뻐할까? 알 수 없다.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학교에 왔을 거 아닌가? 입구에서 발열체크로 이중 확인을 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접속해서 클릭을 해야만 할까? 누가 봐도 실효성 없는 행정력 낭비지만 새로운 결정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

에어컨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 우려 때문에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다가 다시 에어컨을 사용해도 좋다고 한다. 단 창문을 1/3정도 열어야 된다는 것이다. 창문이 12개인 경우 4개를 열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의심스럽긴 마찬가지다.

근무하는 학교가 기숙형이다. "중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기숙형 중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니 기숙사를 운영해야죠."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교육부에서 정해놔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기숙형 중학교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게 교육부의 대답이다. 전국적으

1)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 뇌+오피셜의 합성어

로 수천 억을 들였지만 그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코로나 와중에서 기숙사 입사는 언제하고 방과후는 언제부터 해야 할까? 특별한 기준은 없다. 슬슬 눈치를 보며 '다른 학교'가 하는 대로 한다. 또 뇌피셜을 작동해 "그래도 학생이 50% 이상은 들어가야 기숙형"이라고 말한다.

결정권을 갖게 되면 신이 나야 될텐데 학교와 교육청 관료사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결정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꾸 중앙을 쳐다보며 지침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결정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교육청은 학교로 미루고, 학교는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다. 내려오지 않는 지침을 기다리며 네이버 다음 뉴스 여론을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한다. 누가 정해준 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상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떠밀려서 결정을 하게 될 때도 교육적 관점이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관리의 편의와 학부모 민원 두 가지가 기준이 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말단 행정조직이 되었고, 교사들은 완벽한 하급 관료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A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한 학생이 예비령 시간에 미리 나눠준 서술형 답안지에 머릿속에 있던 것을 끄적거려 메모를 했다. 본령이 울리고 시험도 그럭저럭 쳤고, 점수도 확인했다. 그날 시험은 네 과목이었다.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과 카톡으로 상담을 하면서 불거졌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외운 걸 답안지에 적고 문제지 받자마자 바로 풀었어요. 그래도 되는거죠?"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성적관리 위원회를 열었다. 학교에서는 네 과목 모두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 학생과 교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학생이 진술을 바꿔서 "저 사실 생각해 보니 시험 중간에 메모한 거였어요."라고 한다면 재심을 해서 원래 점수로 복원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학교의 결정 배경이 교육적 관점보다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교사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계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프랑스에 있는 「귀르」라는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다. 독일군이 프랑스로 진격해 오자 수용소 관리자들의 말이 아침저녁으로 바뀐다. '가도 좋다', '남아라', '안된다'. 한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수용소 탈출을 감행한다.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 관료가 되어버린 교사들

행복씨앗학교 등에서 중요 역할을 맡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진다. 전학공도 해야 되고, 교사 다모임도 해야 되고 업무정상화도 해야 되고, 배움중심 수업도 해야 된다. 평화·인권, 민주시민교육등 진보적 의제들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고 뒷말을 한다. 독단적이다, 소통이 부족하다, 일거리 늘어난다 등등의 불평을 한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새학년 준비기간 연수에 안건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제안했고, 그 일환으로 '토론이 있는 교직회의 운영 규칙' 즉 회칙을 통과시켰다. 공식적인 논의기구가 있다면 참여하지 않은 잘못, 의견을 내지 않은 잘못에 대해 말하며 공동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아서다. 회칙은 회의의 위상, 회의의 빈도, 개의 요건, 의결요건, 개정요건 등이 담긴 3쪽짜리 문서다. 제정 과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문구 내용을 지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 제시도 없었다. 그러나 회칙 제정 후 소통메신저로 또는 개인적으로 '왜 표결을 하지 않았느냐?', '너무 일방적이다', '불필요한 거 같다' 등등의 불만이 전달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고 말했다. 그런데 점수 경쟁과 비교의 교육으로는 강한 자아를 가진 민주시민을 전혀 길러낼 수 없다. 경쟁에서 패배한 90%의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경쟁에서 이긴 10%의 자존감 또한 비교에서 오는 허약한 자존감이어서 유리처럼 부서지기 쉽다. 카이스트에서 학생의 학점이 낮으면 등록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등록금을 운영한 적이 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집에서 걱정하는 전화를 받은 학생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퇴를 하지 왜 자살을 해?" "그 머리로 재수하면 좋은 학교 충분히 갈텐데."라는 반응들 외에 이런 조언도 있었다. "꽃동네 같은 데서 봉사활동 하고 오세요. 그럼 내 삶에 대해 진짜 감사하게 된답니다" 상대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을 자기보다 부족한 존재들과 비교해서 상쇄하라는 것이다.

결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관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존감 이야기를 하니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그런데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자존감 문제 아닐까? 코로나 19가 주어진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관료 역할에 만족하는 교사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 주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어떠했는가? 하나마나한 질문이다. 평소에 작동되지 않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갑자기 작동될 리 없기 때문이다. 모두 다 아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 제도와 사람의 문제다. 제도는 상대적으로 금방 갖출 수 있다. 학교자치와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기는 어렵다. 그리고 바뀌어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으로 나쁜 생각을 한다.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온다.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교육개혁이 어쩔 수 없이 이뤄진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 때도 교육부만, 정은경 본부장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 온(on)라인을 온(溫)라인으로[2)]
- 성화초 6학년 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의 상호작용 의미 고찰

성화초등학교 이우람, 김재성, 이노민
오유진, 김기홍, 이현규, 김다희

1. 들어가며

처음엔 단순히 새로운 질병이 생겨난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이 질병은 한 도시를 멈춰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멈춰 세웠으며, 이제 평범하고 당연했던 이전의 삶을 낯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감염의 위험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의 위험은 전지구화되는 동시에 계급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요양병원과 구로 콜센터, 쿠팡 일용직 등의 감염 확산 양상과 경로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조가 어디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지점입니다. 그나마 학교와 교실 문턱에서 제어되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이제 돌봄과 교육의 최우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접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아동학대 문제 또한 대면 접촉의 범위가 줄어든 코로나-19 시대의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벡은 오늘날의 전지구적 위험과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는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도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간이 침범한 결과일 거라는 추측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근대화는 인간에게 풍요와 번영을 안겨주었지만,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었습니다. 벡은 이러한 위험의 해결책으로 ‘성찰적 근대화’를 제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의 기본토대가 되는 과학기술, 합리성 등을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성화초는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입니다. 저희 생각에 혁신학교의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작동하는 듯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꽤 성과를 보인 ‘비정상의 정상화(전근대적인 것의 근대화)’ 축입니다. 혁신학교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교사들은 비민주적인 학교 체제와 문화, ‘업무하느라 수업 소홀히 하는 학교’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이를 개선시켜 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 교육이 중심에 있는 학교라는 담론을 정착시키고 이에 걸맞는 행위들을 실천했습니다.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벡이 이야기한 성찰적 근대화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닙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 다른 측면에서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정상성의 문제화와 해체를 동반한 ‘정상성의 재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코로나-19는 당연하게 해오던 우리의 교육양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이 이야기되는 지금 이 위기가 얼른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앞서 이야기한 ‘성찰적 근대화’, 즉 ‘정상성의 재구성’ 측면에서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

2) 이 발제문은 성화초등학교 교육과정 6월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3)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영역을 미래교육 담론으로 차별화를 모색하는 듯 보인다. 미래교육 담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의 내용과 방식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지, 담론의 범람으로 기표만 남게 될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라서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표준화된 학교 시공간적 요소, 학생 밀집도, 교육과정의 구성, 수업 방식, 평가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기존 학교교육의 정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최신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학교 시공간의 변화, 교수자와 학습자의 성격 변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논의는 교육 뿐 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논의되고 시도될 것 같습니다. SK에서는 화상면접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무실을 분산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5월 15일 싱가포르 대법원은 화상회의 서비스인 Zoom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4] 그렇다면 이제 교육 영역에서 학교와 교사는 필요 없어진 걸까요? 돌봄을 제외한 교육의 영역은 인터넷 강의, MOOK와 같은 온라인 기반 학습과 플랫폼에 넘겨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까요?

저희들은 기존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년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문제화해야 하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2. 교육과정 재구성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는 경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교과로 분절된 중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초등 또한 여전히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정상(the normal)'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학계나 일부 정책 상의 '교육과정 구성' 담론은 기표로 부유할 뿐이었죠. 하지만 많은 혁신학교는 '교과서'로 대변되는 기존의 지식관, 인식론을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수업', '삶이 교육이 되는 교육과정' 등으로 문제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단발적이고 파편적인 행위가 아니라 역사성과 역동성을 동반한 일련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가' 입니다. 특히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과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화초 6학년의 교육과정은 꽤 주목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축적되어 온 다양한 주제중심 교육과정은 어느정도 역사적 산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 온라인 수업의 질적 수준을 최대한 담보하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은 단순히 2020학년도 6학년 교사의 능력이 아니라, 학교가 오랫동안 중시해온 공동체성과 축적과 변화를 동반한 역사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맨땅에 헤딩했다면 저희도 유튜브와 에듀넷 등을 헤매며,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링크하거나 교과서 내용을 잘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진 덕분에 위기를 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처럼, 교사의 열정에 매달리기 보다(쥐어짜기 보다), 기존 학교의 개인화, 파편화, 단절의 문화를 문제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성과 역사성을 살려나가는 교육체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글에서는 6학년 교육과정 주제 내용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과 변화과정, 그 과정의 인과성과 우연성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

4)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 푸니탄 게나산(37)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사형선고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화상 공판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더욱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격 사형선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7일 나이지리아 라고스 법원도 줌을 통해 교수형을 선고한 바 있다(시사인, 663호).

가. 주제 1. 슬기로운 민주생활

2020. 성화초 6학년의 첫 번째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은 ‘슬기로운 민주생활’ 입니다. 2017년 ‘우리가 만드는 사회’ 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진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검토하며 의미 있는 내용과 활동, 자료는 살리고, 2019 개정교육과정의 변화, 혹은 학년 구성원들의 생각과 관점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렇게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가 만드는 사회’ 라는 주제는 2020년 ‘슬기로운 민주생활’ 이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민주생활’ 은 명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핵심 주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수업으로 풀어내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의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의 민주주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6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제로 할 수 없는 학급대표 선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학급대표’ 가 무엇인지 함께 토의하는 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9학년도에는 2학기에 학습했던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을 1학기에 추가하여 민주주의와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슬기로운 민주생활’ 의 핵심 활동은 ‘전교 학생회 구성 프로젝트’ 입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 민주주의에서 배웠던 내용과 역사 속 민주주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학사일정으로 인해 전교 학생회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교 학생회 구성 프로젝트’ 는 등교개학 후 전교 학생회 선거가 시작될 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제 1은 진행되다 멈추고 주제 2와 3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잘 연결시킬지, 교사들은 어떻게 다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존재자인 나와 너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각자 의견이 다르기에 생각을 나누고 설득하고, 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의사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함을 알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결정된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얼른 ‘학생회 구성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이 주제를 마치며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나. 주제 2. 슬기로운 가정생활

6학년의 두 번째 주제인 ‘슬기로운 가정생활’ 은 2016년 큰 주제 중심 교육과정 사이에 가정의 달 이벤트로 만든 정말 막간의 주제 ‘사랑하는 OOO ~ 정말 고맙습니다!’ 가 전신입니다. 이 주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드리기 위해 국어-비유적 표현과 미술-나만의 글씨체로 글쓰기 단원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된 시를 캘리그라피로 쓰고 국어-마음을 표현하는 글 단원을 공부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기존의 주제와 달리 차시도 그리 많지 않고 아이들도 편하게 수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6년 주제중심 교육과정이 국어와 미술 교과를 융합하여 예쁜 글씨로 시를 쓰고 편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2020년은 ‘가족’ 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것을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미술 대신에 실과 1단원 ‘건강한 우리 가족’ , 3단원 ‘가정생활과 실천’ 단원을 공부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의 모습은 똑같거나 유사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동생(혹은 언니, 누나)으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abnormal)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그들은 나름의 가족 형태 속에서 돌봄과 사랑, 존중과 배려라는 소중한 가치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 이 '틀림' 이 아니라는 것, '남들과 다름' 이 '비정상적인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가족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또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습만큼이나 가정 내의 역할 또한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여러분은 밥 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는 게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이번 주제를 통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우리의 가정생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 주제 소개 일부

주제 소개에서도 드러나듯이 아이들이 '정상 가족' 서사를 벗어나 다양한 서사를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제는 5반 김기홍 교사가 오랫동안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단순히 혈연을 중심으로 매개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라는 가치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기 바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그러한 것을 직접 말하는 것을 보며 나름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격수업으로 인해 미리 준비하지 못해 10차시라는 짧은 시간만 다룬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아마 내년에 누군가가 더 좋은 주제와 내용으로 발전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주제 3.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6학년의 세 번째 주제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은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주제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2019년까지 4년 간 다듬어진 주제 얼개와 축척된 다양한 수업 자료 덕분에 올해 교육과정도 수월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에 앞서 이전까지 해왔던 주제 얼개와 수업 자료들을 살펴보았고, 올해의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나의 장점, 나의 성격, 나의 기질(애니어그램) 유형, 나의 이름과 탄생에 얽힌 이야기 등 '나' 에 대해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이후 나의 서사를 완성하는 이야기 재료가 됩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 이전까지 지속되어 왔던 맥락은 유지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고 폭넓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작년 실습 길라잡이 연수에서 알게 된 애니어그램 활동과 동화책 '슈퍼거북' 을 통해 나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학년 선생님과 저의 경험, 관심 분야, 교육관 등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다른 6학년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면, 혹은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교육과정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에는 과거 6학년 선생님들의 역사와 현재 6학년 선생님들의 관점이 묻어있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주요 활동으로 ‘온 책 읽기’와 ‘나의 이야기 쓰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면대면 수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활동과 글쓰기 활동은 ‘학생 중심 활동’인 동시에 ‘개별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화상 수업과 밴드의 댓글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가 피드백해주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틀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타인도 잘 이해하게 되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존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의 핵심 가치는 ‘자기 이해’와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마쳤다고 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하며 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학년의 각 주제 수업들이 어떻게 온라인 수업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원격 수업과 상호작용

가. 실시간 화상수업

6학년은 수업의 성격과 전체 수업 운영시 수업 강도에 따른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29차시 중 6~10차시 가량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이 약 8주 간 진행해 본 실시간 화상 수업의 특징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화상수업은 즉시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온라인 컨텐츠들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 질문을 하기 힘들죠. 하지만 실시간 화상 수업은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바로 할 수 있고, 선생님이 바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올라온 영상을 보고 공부할 때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질문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해 주는 것과 나중에 올라온 대답을 확인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화상 수업은 정서적(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동영상 컨텐츠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비교적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업 전이나 도중에 가벼운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활동 중에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기가 용이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동생이 함께 자리하거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평소의 생활과 정서를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의 아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모둠별로 소통을 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하며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실제 등교보다도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둠별로 활동지에 작성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른 원격 수업에서는 시도하기 힘든, 실시간 화상수업에서만 가능한 상호작용입니다.

반면에 실시간 화상 수업이 던져주는 고민거리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비디오를

끄거나 화면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기존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호작용 질서의 특징을 단순히 부적절함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서로의 상호작용 질서의 어긋남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교사 제작 컨텐츠 활용 수업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이란 교사가 직접 자기 수업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한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6학년 학생 특성 상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이 비교적 용이하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중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의 장점으로는 첫째, 콘텐츠에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가 직접 등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교사에 대한 친밀감이 더불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습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둘째, 수업내용 및 수업방법을 보다 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은 단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의 영상 시청으로 학생들이 수업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 제작 동영상은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활동지 구성 또한 평소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교사들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은 평소 일상적으로 해오던 내용 설명, 수업 안내, 과제 피드백 등의 방법을 재고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수업 방법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성화초 6학년은 온라인 학습으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콘텐츠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작된 교과서 중심의 수업 자료를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시대에 학교교육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 전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고집하며 전문적인 강사의 온라인 컨텐츠 질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기존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저희들은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활동이나 활동지 자료들을 온라인 수업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업내용을 생각해 봄으로써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중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의 단점으로는 첫째, 교사 콘텐츠 활용 수업 후 학습이 끝난 걸로 인식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모르는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스스로 추가 학습하거나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기에 학생에게 학습과 관련된 부족한 점이나 오개념을 교사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초등학생의 집중시간은 일반적으로 10분 내외라고 합니다. 콘텐츠 재생시간이 길어진다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학습 내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10분 내에 한 차시 학습내용 모두 포함하여 잘 조직화 된 콘텐츠를 구성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분 내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기술이 필요한 데 이점은 교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수업 디자인 측면에서 더욱 연구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 외부 컨텐츠 활용 수업

처음 우리가 논의하고자 했던 수업의 마지막 유형은 과제 수행형 수업이었습니다. 과제수행형 수업은 교사가 학습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학습플랫폼에 올려놓고 교사가 이에 대하여 피드백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니 다른 온라인수업 방법과 다르게 과제 수행형은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다른 형태의 수업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제 수행형 수업은 대부분의 원격 수업에서 다른 수업 형태와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어떤 수업은 실시간 수업인 동시에 과제 수행형 영역에 속하기도 하며 교사 콘텐츠와 과제가 결합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교사콘텐츠와 기존에 제작된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는 혼합형의 과제수행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구분 유형이 아니라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교사가 학습과제를 제시할 때에 제공하는 자료가 교사가 제작한 콘텐츠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제작된 것을 활용하는 콘텐츠 일 수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 따라서는 외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수업을 준비하기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를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콘텐츠들은 우리가 의도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기에 의도한 바에 맞추려면 오랜 서칭과 편집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외부 컨텐츠 수업을 이야기하기 앞서 학습 플랫폼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며 저희는 기존 원격 수업에 맞추어 조직화 된 (교육부에서 권장하거나, 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학습플랫폼(에듀넷 e-학습터, 위두랑)을 선택하지 않고 네이버 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버의 ‘안정성’과 학급 운영 및 수업 진행의 기능적 측면에서 밴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언택트 환경에서 온택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혼자 공부하는 것을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영상 보여주고 과제를 제시하고 끝나는 것(내가 받는 온라인연수 식 수업-교사가 아니어도 누군가 대체 가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업이 어떻게 시작돼고 마무리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부 콘텐츠(구글, 신문기사, 뉴스, 교육용으로 제작 된 영상, 유투브 등)들은 교사들은 접하기 어려운 (방대하고 집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좋은 촬영 장비와 음향기술 등이 합쳐져 고도로 조직화되어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주제중심으로 펼쳐가며 했던 작업은 주제에서 목적하고자 했던 것을 재음미하고 그 의도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콘텐츠 활용 수업의 장점으로는 첫째 접하기 어려운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사회의 저명인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 어려우며 설문조사 등 사실적인 소재를 모아 자료를 통계처리 하고 가공하여 학습자료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뉴스’ 또는 유투브 등의 외부 콘텐츠에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교사 개인이 따라가기 힘든 높은 퀄리티의 제작 기술로 인해 전달력이 매우 좋습니다. 좋은 촬영장비를 가진 영상기술자와 음향, 조명 등을 바탕으로 교사가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이나 이미지를 화면으로 담고 효과까지 넣어 몰입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30년 역사를 5분에 담아내기도 하며, 지루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조직화해서 화면과 음악, 자막으로 몇 분으로 집약하여 담아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동료 교사들과 협의할 시

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업을 더 잘 하려는 욕심으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지를 질문해 주는 쌤들. 제시된 과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협의해 주는 샘들. 솔직히 대충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쌤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영상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라.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특징

흔히들 원격 수업의 단점으로 대면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원격 수업이 이전의 대면 수업에 비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저희도 그러한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며 이러한 답답함에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에 길들여진 것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대면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교사를 하면서 대면 상호작용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원격수업으로는 도저히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원격수업이 상호작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다거나 대면 수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원격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원격 수업의 가시적 현상을 이야기 하는 것을 넘어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과도 원격으로 공유하고 있네요.)

저희 학년은 줌과 밴드라는 두 가지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은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수업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조례와 종례입니다. 저희 학년은 매일 줌을 통해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5] 이것이 가져온 변화는 꽤 유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인사도 없고, 아무 말도 없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인사를 나누고 질문도 합니다. 또 나가기 전에는 손을 흔들며 “내일 뵈요” 혹은 “오늘은 일찍 끝내주셔서 좋아요” 등의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제법 농담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수업시간과 종례시간에 자신의 동생이나 애완견과 함께 줌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교사와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정서적 교류가 일어나고, 라포가 형성됨을 느낍니다. (직접) 면대면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비록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수업 뿐 만 아니라 밴드 댓글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시간 화상수업 아닌 교사 제작 콘텐츠, 외부 콘텐츠 수업의 경우 아이들은 과제를 수행 후 결과물을 밴드에 댓글로 올려야 합니다. 과제에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모든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②틀린 내용을 적은 친구에게만 피드백을 하기도 합니다. 때론 ③pass or fail 형식으로 과제 제출 여부만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교사가 밴드 댓글에서 어떤 피드백을

5) 전체적으로 종례를 zoom을 통해 하며 하루 전체 수업 피드백을 하자고 약속하였고, 현재 몇몇 학급은 아침 조례도 zoom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주냐에 따라 아이들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즉, 아이들도 교사의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자신들의 처신을 선택합니다.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상호작용 질서가 끊임없이 재편성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저희 6학년이 느낀 건 모든 과제에 개별적으로 길게 피드백하는 방식이 항상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저 한 것만으로 대견한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이 실시간, 비실시간 의사소통 특징을 고민하며 다양한 수업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호작용	비실시간 상호작용	
	줌(zoom)	**밴드 댓글**	**밴드 채팅 혹은 문자, 카카오톡 등**
수업	-즉각적인 피드백 가능 -휘발성이 강함 → 화면 전환 기능, 채팅창 이용 -교사 설명 중심의 소극적인 학습태도	-지속성이 강함 -개별적 피드백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다원화, 맞춤형 (적극적인 의사소통 가능) - 실시간은 아니나, 밴드 댓글보다는 즉각적임 - 상호작용의 기록이 남음 - 사적 관계가 맺어짐. (이는 대화의 성격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짐)
관계의 형성	-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소그룹 기능 -소그룹 회의를 통해 학생들 간의 소통과 배움 공유	-서로의 댓글을 보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탑재 → 학생들 간의 학습 내용 공유 및 교류	
감정의 교류	-매일 조례와 종례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마음 나누기	-선생님의 피드백과 이모티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이 필요한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에서 15명 정도는 원격만으로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습 효과도 긍정적입니다. 5-6명 정도는 선생님이 전화해서 독촉하고 애정 어린 협박(?)을 하면 수업을 하고 과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일부 3-4명의 학생은 아무리 독촉을 해도 쉽게 과제를 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친구들이 아니죠. 밴드와 활동지에 자세히 안내해 주어도 안 합니다. 이러한 몇 명의 아이들은 교실로 불러서 직접 지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교실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상의 인물을 현실로 불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신기하게도 교실로 와서는 교사가 조금만 알려주면 곧잘 과제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과의 만남,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부모님 모두 직장에 나가시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집에서 그 아이들 스스로 과제를 해낸다는 건 벅찬 게 사실이니까요.

앞에서 살펴본 원격 수업에 따른 상호작용의 특징들은 단순히 원격 수업 상황에서 고민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우리들의 교실 수업은 어떤 상호작용의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는 학생들과 교사에게 어떤 암묵적인 행위 규칙을 강제해 왔을까요? 단순히 '요즘 아이들은...' 이라는 말로 세대 차이로 치부하던 문제가 사실은 기존 상호작용 질서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하던 것은 아닐까요?

나가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길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학교 존재의 이유에 대해 물음을 던집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조차 기존의 EBS 강의와 자신이 만든 수업영상의 질을 비교하며 기존 영상을 링크 걸어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강을 보노라면 교사가 따라가기 힘든 테크놀로지 수준과 수업 전달의 깔끔함에 기가 죽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과연 수업은 지식의 전달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일까요?

사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물음은 우리에게 많은 사유거리를 제공하는 몇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6] 하지만 저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집중하게 된, 그래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했던 개념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선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입니다. 어빙 고프만은 많은 학자들이 행위자(개인)와 구조(사회)에 관심을 기울일 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 학자입니다. 그는 각각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 질서(의례)'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개인들은 자아를 연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상황에서 자신을 연출하는데, 자아 연출의 방식이 상호작용 질서에 부합하면 존중과 환대를 받지만, 부합하지 못하면 모욕과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양한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정서적 에너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학교교육을 바라보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니며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삶을 꾸려갈 것인가, 지식을 어떻게 창조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며 교실수업은 그 상호작용 질서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살아있는 실천행위입니다.[7] 이런 관점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온라인 기반 수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익숙해 있던 상호작용 질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8]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오프라인을 온(on)라인으로 대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는 온(溫)라인 교육이 아닐까요?

부록

1. 2020. 6학년 주제중심 교육과정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I5KudqFQbWw
2. 2020. 6학년 원격수업의 실제 https://www.youtube.com/watch?v=UbydhuimRzs
3. 2020. 원격수업에서의 상호작용 특징 https://www.youtube.com/watch?v=N3on_cqsuKA

---

6) 지식에 대한 관점은 오랜 기간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으며, 수업을 이야기하며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거칠게는 본질적 실재론과 사회적 구성론으로 양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훨씬 논의의 폭이 다양합니다.

7) 대다수의 수업 연구에서는 수업의 모든 상호작용이 수업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호작용도 이루어진다. 수업 중에도 행위자 간에 갈등이 있고 교육내용이나 목표와 관계없는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수업 중에는 상호작용의 양이 엄청난데 교사로만 한정하여도 하루에 천 번 이상의 상호작용을 한다(Jackson, 1968: 26). 수십 명의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수업 중에는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업은 이처럼 다양한 양상의 상호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다(지항수, 2017: 4).

8) 고프만조차 모든 상호작용 연구를 '대면(face to face)'상황을 전제로 수행했습니다. 그만큼 직접 대면이 아닌 상호작용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출현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교육부-교육청-학교의 운영시스템 성찰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한 충 희

Ⅰ. 들어가며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라는 컨트롤타워의 선진방역체계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방역이라고 불리는 코로나19 극복의 세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때 마스크 구입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공적마스크 요일제 도입과 동네 약국의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빠르게 지급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나갔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력과 역량을 느낄 수 있었고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유독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정부 부처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속한 교육부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상급기관인 교육부로 권한은 집중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의 수많은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며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어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등교 중지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추가 등교 연기만을 되풀이하였다. 등교개학 이후에는 방역 전문가가 없는 단위학교를 방역의 최전선으로 몰아넣으며 수많은 교사들에게 방역의 책임까지 떠넘겨 안그래도 힘든 학교 선생님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코로나가 가져온 교육계의 혼란과 위기는 그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교육부-교육청-학교로 내려오는 시스템과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과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기상황 속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성찰해보고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Ⅱ. 교육자치 시대와 코로나19가 만나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조금씩 이전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며 도민, 시민들이 스스로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교육 분야에서도 도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이어 교육자치의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흘러가게 되었다. 상위 감독기관의 느낌을 주었던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교육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단위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획일화된 교육과정 지침을 내려주는 것에서 단위 학교의 특색과 자율성을 존중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며 교육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단위학교들이 학교 혁신의 주체가 되어 학교자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고 다양한 혁신학교의 모델을 만들며 공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교육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단위학교로 분산되었던 권한은 자연스럽게 상위기관인 교육부로 집중되었다. 교육부는 강화된 권한으로 전국의 학교에 전면 등교 중지를 결정하였고, 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과 순차적 등교수업을 결정하며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내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해야 하는가?

교육부는 당초 3월 2일이던 개학일을 3월 9일, 3월 23일, 4월 6일 등으로 연기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4월 9일 고3, 중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다. 당시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등교수업을 하기에는 여론도 좋지 않았고 교육부의 입장에서도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했기에 모든 학교에 온라인 개학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며 5명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가 열악하고 학생들의 숫자도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학교 환경에 따라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관리가 되지 않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는커녕 집에서 방치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 읍면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ZOOM 화상프로그램에서 4명의 학생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에게 온라인 개학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방역의 관점과 교육의 관점, 그리고 학교의 책임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은 많은 혼란을 가져왔지만 학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점차 안정화 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등교를 미룰 수는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방역의 관점과 교육의 관점이 충돌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의 관점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교육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온라인에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립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타협안은 불가능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등교수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애초에 방역의 관점에서 해서는 안되는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는 불가능한 방역관리를 학교현장에 강요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하기, 학생 간 2M 거리 두기, 반별로 화장

실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기 등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100%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내려주고 이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사는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학교에 방역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는 '방역의 최전선'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학교의 목소리도 교육부에 닿지 않았다. 그저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불가능한 방역에 그저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가 우리 학교에서 제발 생기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서 교육부에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교육부가 그 책임도 같이 가져갔는지는 의문이다.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지침들, 그리고 유독 학교에 엄격했던 방역 지침들은 방역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학교 현장에 미룬 것은 아닌지, 정말 학교와 교육을 생각하며 움직인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한다.